

# 헤럴드 기어 변호사

**HAROLD J. GERR**  
Attorneys at Law

자동차 혹은 트럭사고,  
척추나 디스크에 관련 된 사고,  
공사현장 사고, 뺑자 부러진 사고,  
범죄로 희생양이 된 사고,  
각종 상해, 사망사고

1-877-249-4600

47 Raritan Ave. Highland Park, NJ

# 은빛 요양원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도와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수준 높은 전문가 서비스  
가정 같은 또 하나의 생활공간  
간호, 간병, 전문 재활치료  
한국문화 정서와 여가 활동

한국어 직통

**732.770.0609**

www.은빛요양원.com



16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

**준 풀턴 부동산**  
908-295-7053

준 원출 풀턴  
Sales Associate  
Re/Max Instyle Realty  
june@instylerealty.com



1378 Route 206 Suite 202, Skillman, NJ 08558 junefulton@remax.net

**Kwik Mortgage**  
**퀵 모기지**  
주/택/융/자/전/문  
다양한 융자 상품, 전화 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spark@kwikmor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VESTA·OH**  
Kitchen & Bath Renovation  
부엌, 욕실 전문그룹  
오용운 토마스 | m 917-662-8353 | kitchenoh@hotmail.com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 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메디케어 무료 상담**  
올바른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박미원**  
Independent Licensed Agent  
문의 전화 908 655 5339

**이문식**  
검안과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각종 안질환 치료  
백내장 검사 및 녹내장 치료  
검안 및 시력 교정  
아동 시시 치료 및 시력 교정  
콘택트렌즈 및 안경 맞춤  
P. 732-393-1210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에디슨 H-Mart 앞

**에디슨 현대정비** Hyundai auto repair  
중합정비  
Auto Repair • Service  
김도영 (Philip Kim)  
C/P : 732-853-5696  
Tel : 732-543-1110  
1808 Woodbridge Ave. (Rt. 514)  
Edison, NJ 08817

**HONORS REVIEW** East Brunswick  
SAT, ACT, APs, Enrichment Programs  
우성현 스테파노 732-254-3349  
3 Lexington Ave East Brunswick NJ 08816

**ND EAST BRUNSWICK**  
NEW IMAGE DENTAL LLC  
444 Ryders Lane  
East Brunswick, NJ 08816  
Tel. 732-432-8388  
J. Woo D.D.S.

**강철한의원**  
진료 안내  
한의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한약(보약, 치료약)  
침, 뜸, 부항  
중국 전통식 지압  
1734 Lincoln Highway Rt.27, Edison  
에디슨 H-Mart 앞 확장 이전  
(732)287-8881

**종합건축 AAMD construction**  
주택, 상가, 무료 상담 및 견적, 면허, 보험소지  
굴치 아픈 문제(건축하기, 누수), 비닐 담장, 데크, 마루, 욕실, 주방,  
지하실, 상가 리모델 등 건축 전반에 책임시공(기본 1년 보증)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성당 교우 10% DC)  
**732-964-9787**  
email: aamdconstruction@yahoo.com

성지순례, 단체관광, 크루즈 전문  
**가고파여행사**  
201-802-0820  
353 Broad Ave. Suite 203 Leonia, NJ 07605

**BOYLAN**  
Funeral Home  
Edison 732-572-0076

**HYUNDAI TOYOTA KIA NISSAN**  
**Jeep CHRYSLER**

**SANSONE** AUTOMALL  
BEST CAR, BEST PRICE  
90-100 RT.1 Avenel NJ 07001  
**Manny Kim**  
201-852-3232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0년  
4월 5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8 : 00 AM  
(영어) - 10 : 00 AM  
(한국어) - 11 : 3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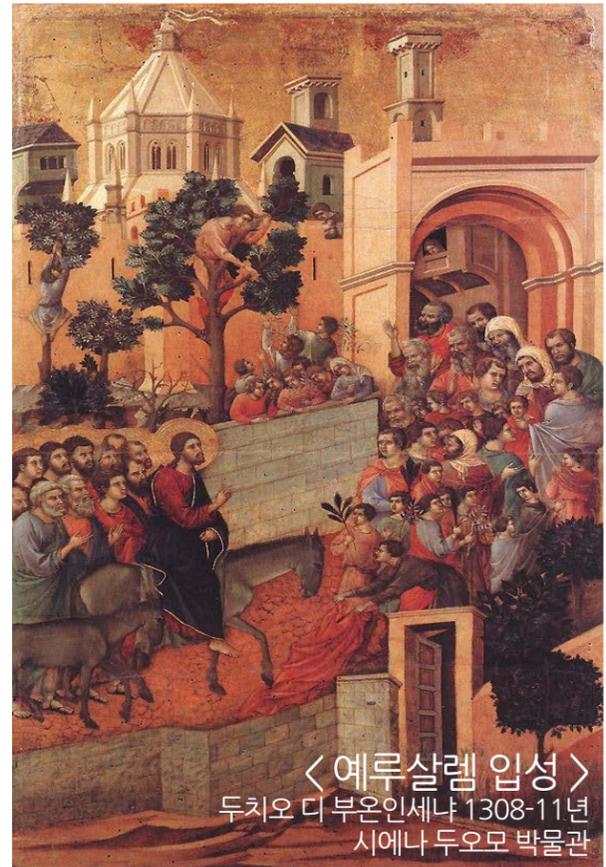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사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예루살렘 입성 >  
두치오 디 부온인세냐 1308-11년  
시에나 두오모 박물관

**<이번주 전례 안내>**  
# 제1독서 이사야서 50,4-7  
# 화답송 시편 22(21).8-9.17-18.19-20.23-24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2,6-11  
# 복음환호송 필리 2,8-9 참조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복음 마태오 26,14-27.66  
후렴: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성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성월요일 4/6/20	이사야서 42,1-7	요한 12,1-11
성화요일 4/7/20	이사야서 49,1-6	요한 13,21 L-33. 36-38
성수요일 4/8/20	이사야서 50,4-9 L	마태오 26,14-25
성목요일 4/9/20	탈출기 12,1-8.11-14 사도바오로 코린토 1서 11,23-26	요한 13,1-15
성금요일 4/10/20	이사야서 52,13-53,12 히브리서 4,14-16; 5,7-9	요한 18,1-19,42
성토요일 4/11/20	[1] 창세기 1,1-2,2 [2] 창세기 22,1-18 [3] 탈출기 14,15-15,1 [4] 이사야서 54,5-14 [5] 이사야서 55,1-11 [6] 바룩서 3,9-15.32-4,4 [7] 예제키엘 예언서 36,16-17; 18-28	마태오 28,1-10

미사지향		
<b>연미사</b>	(봉헌자)	
• 김정순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b>생미사</b>	(봉헌자)	
• 오훈순(카타리나)	- 오.사.모, 홍 비안네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진철(요한)	- 김 율리아, 스테파노 가족	
<b>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b>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훈순 카타리나		
<b>교무금 안내</b>		
박락준 4	한상철 3	황덕삼 1-2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26,14-27.66

○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 수석 사제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 “스승님께서 잡으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을 것이다.” ○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빛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모두 스승님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겻새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야.” ○ 그런 다음,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 예수님께서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라 말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 그리고 다시 돌아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 그때에 우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 그때에 우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 공지 사항

#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 # 매일미사 책 배부 안내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미사 책 배부는 잠시 중단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제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732-356-1037

#### #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 2020-21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 #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투어 212-594-7773

###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3월5일까지 약정된 금액 \$9,085 (26%))

+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던 말이나?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할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यो?”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 “내가 명령하오. ‘살아 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를 밝히시오.’” ○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그때에 대사제가 자기 걸음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그들이 대답하였다. ▣ “그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저끼를 하면서 말하였다. ▣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 베드로가 대문개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 “이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 “당신도 그들과 한때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 그때에 베드로는 거짓임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서른 닢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 그들은 말하였다. ▣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 그것은 네 일이다.” ○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 “이것은 피 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웅기장이 밧을 사서 이방인들의 모지로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 밧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웅기장이 밧 값으로 내놓았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यो?”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움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울려 바라빠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을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 군중이 대답하였다. ○ “바라빠요.”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यो?” ○ 군중이 모두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यो?” ○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यो.” ○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겂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 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겂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대대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 “성전을 허물고 사할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리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미야.” ○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이양거렸다.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등백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깐 묵상한다.〉** ○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종하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대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저녁때가 되자 아리마대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아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 “나리, 저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사할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